

# 삼한시대 부산지역의 대외교류

허 재 혁  
(울산대 강사)

## 目 次

- I. 머리말
- II. 부산의 지리적 환경과 經濟活動
  - 1. 농경과 어로경제
  - 2. 제철산업과 철기생산
  - 3. 교역활동
- III. 삼한시대 부산지역의 對外交流
  - 1. 居道列傳을 통해본 對新羅交流
  - 2. 삼한시대 부산지역의 대외교류
- IV. 맺음말

## I. 머리말

삼한시대 부산지역과 관련해서는 《三國志》에 釜山의 東萊지역에 비정할 수 있는 弁辰瀆盧國이라는 국명과 그 대체적인 위치만이 전할 뿐이다. 즉 삼한시대 부산지역에 존재했던 소국들의 대외교류는 물론이고 정치·경제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문헌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의 《三國志》 魏書 東夷傳의 韓條 및 弁辰條에 보이는 몇몇 단편적인 기사를 통해서만 당시 한반도 남부 정치체들의 대외 교류가 어떻게 이루어졌었는가를 추측해 볼 수밖에 없었다.<sup>1)</sup>

그러나 최근 변·진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유적의 발굴과 유물에 대한 조사 결과는 영세한 문헌사료의 한계성 극복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특히 부산과 인접한 지역이며 전기가야시기의 중심세력이었던 김해에 대한 조사는 그 어느 곳보다도 철저히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묘제 형식의 변화, 철기생산기술의 파급, 환원염 소성의 토기의 출현 등 김해 인근 유적·유물에서 보이는 현상은 삼한의 사회가 어떠한 계기로 선진적인 정치체로 획기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리고 중국계 유물과 왜계유물이 이들 지역에서 다량 출토됨으로써 삼한의 경제활동에서 교역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고 또한 이를 통하여 사회를 발전시켜 나갔음도 알게 되었다.

지금까지의 삼한시대의 대외교류에 대한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주된 연구의 방향은 경제적인 측면, 즉 변진의 철생산과 이를 바탕으로 한 대외교역이다.

부산은 지리적으로 낙동강·동남해와 연해 있다. 즉 낙동강 수계에서

1) 삼한시대 부산지역의 대외교류에 대한 연구 성과는 소수의 유적발굴보고서 이외에는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사 정리는 생략하고자 한다.

최종적인 위치에 있고 또 대외교류가 가능한 항구를 가지고 있는, 교통의 요지라는 유리한 지리적 입지를 가지고 있어 선사시대로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주변 제 문화권이나 정치세력과 연관을 가지면서 발전해왔다. 이러한 측면은 부산지역에 대한 자료의 한계를 인접 제정치체의 추이와의 관련성 검토를 통하여 극복하게 해주고 있다.

본고는 三韓의 대외교류의 역사적 측면을 검토한 후, 부산지역의 지리적 환경과 경제활동, 그리고 고고자료의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서 부산의 삼한시대 대외교류의 실상을 주변 제세력과의 관계하에서 살펴본다.

## II 부산의 지리적 환경과 경제활동

### 1. 농경과 어로경제

삼한시대 부산에서 유력한 정치권이 형성된 지역은 현재까지 발견된 삼한 삼국·시대 유적의 분포도를 통해 볼 때 현 부산광역시 금정구·동래구 지역 일대라고 할 수 있다.

이 지역은 수영·온천천 등 다수의 하천과 직접 닿아 있으며, 이들 하천의 상류지역을 거슬러 올라가면 부산을 동서로 갈라놓은 금정산맥을 지나 양산에 이르렀으므로 영남지방의 중심 하천인 낙동강에 이르게 된다. 또한 이들 하천이 東南海로 연결되는 곳이기도 하여, 주변지역과의 원활한 교류를 위한 탁월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sup>2)</sup>

이러한 환경적인 이점으로 말미암아 각 시기별로 주 경제활동의 차이에 따라 다소 입지의 변동은 있었으나 꾸준히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의 주된 생활공간으로서 이용되어 왔다.

부산지역에서 삼한시기까지 행해졌을 것으로 짐작되는 경제활동으로는 農業, 水産業, 製鐵業, 陶製業, 織布業 등을 들 수 있다.

2) 《東萊區誌》pp36~57.

《三國志》魏書를 보면, '토지가 비옥하여 五穀이 잘 자라고, 누에와 뽕을 가꿀 줄을 알고 비단을 짠다.'<sup>3)</sup> 라고 되어있는데, 현재 부산의 삼한시대의 생활유적, 특히 주거지와 농경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명확한 증거를 찾을 수 없으나, 온천천과 수영강 일대의 산록지대에서 농경이 행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역에서 農耕과 관련된 경작·수확도구와 탄화곡물류는 新石器時代 유적인 동삼동패총에서도 확인되고 있어 농경이 이른 시기부터 행해졌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삼한·삼국시대에 이르러서는 고분의 부장유물로서 철제농기구 등이 출토되고 있어 아마도 상당한 수준의 농경활동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역의 농경에 관한 연구를 뒷받침해주는 당시의 농경지·관개시설 등 농경관련유적의 발굴이 진행되지 않아 정확한 농업생산력 규모의 추정이 어렵기는 하지만,<sup>4)</sup> 부산 동래지역에서 농경이 경제활동의 중심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현 동래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있는 지형상황을 살펴보면 농경에 적합한 토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따라서 부산지역일대는 農業生産力에 있어서는 일정 정도 제약을 받은 것으로 추측된다.<sup>5)</sup>

김해나 부산 등지에서는 선사시대에서 고대에 걸쳐 수많은 패총유적이 발견되었는데, 특히 동래패총에서 발견되는 어패류를 중심으로 하는 생물 유존체의 성격으로 미루어 보아 식생활과 관련된 경제활동은 어로에 보다 치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삼한시대 부산 일대의 지리적 조건과 출토되는 각종 유물

3) 土地肥美 宜種五穀及稻 曉蠶桑 作縑布, 《三國志》魏書 東夷傳 弁辰條.

4) 광중철, 1992, 〈韓國과 日本의 古代農業技術〉, 《韓國古代史論叢》 4집.

5) 김해·동래지역에서 可耕地로 사용될 수 있는 곳은 소규모로 형성된 협소한 谷底平野뿐이다. 吳建煥, 〈完新世後半의 洛東江三角洲 및 그 周邊 海岸의 古環境〉《韓國古代史論叢》2, 1991 ; 潘鏞夫·郭種喆, 〈洛東江河口金海地域의 環境と漁獵文化〉《古文化談叢》第31集, 九州文化研究會, 1993 ; 郭種喆, 「先史·古代 稻資料出土遺跡의 토지조건과 稻作·生業」《古文化》42·43합집, 1993.

로 미루어 볼 때 이 지역에서는 활발한 어로행위가 활발히 이루어졌을 것이며, 더불어 鹽과 海産物의 交易도 낙동강을 따라 내륙지방에까지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러한 농업생산력에서의 한계성은 삼한시대 부산지역 정치체의 경제활동에 있어서, 어로활동과 삼한시대 변진지역의 주생산 활동이었던 製鐵, 그리고 이를 매개로 하는 交易의 비중을 한층 더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2. 제철산업과 철기생산

《三國志》 魏書에는 변진 지역에서 다량의 鐵이 생산되었고 마치 貨幣와 같이 사용되었으며 鐵을 매개로 漢郡縣은 물론이고 濊·倭 등 과도 交易이 이루어졌다고 하고 있다.<sup>6)</sup>

靑銅器는 최초로 사용된 금속기였지만 원료공급의 한계성, 銅性의 한계성 때문에 武器나 지배자층의 威信材 제작에 주로 사용되었으며 무구·생산도구로서 실제 사용된 것은 石器였다.<sup>7)</sup> 반면 鐵器는 鑄造와 鍛造가 모두 가능하며 대량 제작할 수 있어 생산력의 발전과 사회통합 그리고 그에 따른 사회발전을 가능하게 하였다.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철기소유의 확대를 위해서는 질적인 면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충분한 제철원료의 확보라고 할 수 있다. 제철에는 사철과 철광석을 이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대체로 사철이 철광 인근의 하천지역에 풍부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변한지역은 원료공급의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풍부한 철광의 존재는 삼한시대에 다른 지역에 비

---

6) 國出鐵韓濊倭皆徙取之 諸市買皆用鐵 如中國用錢 又以供給二郡, 《三國志》 魏書 東夷傳 韓條.

7) 특히 변한지역에서의 청동기시대 청동기의 출토량은 타지역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해 우수한 철기생산의 대량생산을 가능하게 한 요인이 되었다. 이 지역의 대표적인 철광은 아래와 같다.

〈표-1〉 嶺南地方의 鐵鑛產地

철광의 종류	철 광 산 지
자 철 광 (72.4%)	부산시 동래철광, 성지광산, 피정철광 김해시 상동면 52호광산, 매리철광 양산시 물금면 경남철광, 물금광산 울산시 농소면 울산철광 거제시 장승포읍 8호광산 밀양시 단장면 동진광산 경주시 외동면 개곡리
적 철 광(70%)	양산시 물금면 물금철광
티탄철광(36.8%)	합천군 가야면 죽전리
황 철 광	창원시 김포광산, 구룡광산, 용흥광산, 마진광산 창녕군 적약산광산 합안군 제일군북광산 고성군 낙동광산 부산시 용호동광산, 기장광산, 일광광산, 철마광산 밀양시 국전광산, 덕성광산 경북 봉화군, 영덕군, 울진군, 달성군

〈표-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김해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상동광산과 물금광산, 경주지역에는 울산의 달천광산과 같은 삼한시대 이래 조선·일제시대까지 이용되었던 영남지방의 대표적인 철광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부산지역의 경우에도 역시 동래철광 등 다수의 철광이 산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들 철광산지 혹은 인근 정치체의 거주지역내에서는 대부분 제철로·단야로·목탄요 등이 발견되고 있어 이들 철광을 기반으로 하

여 철생산이 이루어졌음이 확인되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의하면 삼한시대 부산지역의 제철관련유적은 동래패총이 유일하다.<sup>8)</sup> 부산은 근현대에 이르러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삼한시대 유적의 대부분이 이미 파괴되어 버렸기 때문에 정확한 철생산의 규모를 파악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지만, 삼한·삼국시대의 동래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유적에서 철정, 鍛冶具, 그리고 고도의 제작 기술을 요구하는 갑주 등의 철기류가 출토되고 있어 부산 특히 동래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도 철생산이 여타 변진지역에 못지않게 활발히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더구나 농업생산력 등 다른 경제적 요소가 제한되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되는 5~6세기대의 동래지역에서 뚜렷이 나타나는 정치체 발전의 경제적인 토대는 철생산 이외에는 생각할 수 없다는 점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sup>9)</sup>

삼한시대에는 정치체 사이의 통합이 활발히 이루어지던 단계로 특히 삼한 후기로 가면 철기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였다. 이런 상황은 철이 생산되지 않았던 일본도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이런 여건하에서 변진 지역의 철은 높은 경제적 이득과 더불어 유리한 정치적 위치도 보장하였을 것이다.

특히 지정학적으로 변한지역의 철이 공급될 수밖에 없었던 日本과는 그 관계가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sup>10)</sup>

---

8) 이 遺構는 고열에 탄 흙으로 이루어 있는 길이 75cm, 너비 25cm, 깊이 18cm의 반지하식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주위에도 역시 또 다른 小形爐들이 확인되었다. 국립중앙박물관, 1998, 《東萊樂民洞貝塚》. 그러나 이를 鍛冶爐로 보는 견해도 있다. 부산광역시립박물관북천분관, 1998, 《釜山의 三韓時代 遺蹟과 遺物II》.

9) 김해의 狗邪國과 경주의 斯盧國은 주변의 주요 철광산지의 획득을 통해 전기기야의 맹주국으로 부상했다고 보이는데, 부산지역의 삼한시대 정치체 역시 동래지역과 기장 일대의 철자원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상당한 정도의 정치체를 형성했을 것이다.

10) 현재 일본에서 출토되고 있는 韓系 鐵器遺物이 변진지역에서 생산된 것이라는 점은 이러한 상황을 증명해 주고 있다.

### 3. 交易活動

前近代時期부터 각 정치체간의 경계는 江이나 山脈 등의 지리적 조건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嶺南地域의 지형은 山川을 경계로 다수의 盆地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기의 차이가 있으나 三韓時代에 이르러서는 각 분지별로 일정한 政治體가 형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변한지역은 洛東江과 그 支流들이 유기적으로 얽혀 각 집단간의 교류 통로로서 기능하였다. 내부 소국간의 교류에도 이들 하천을 통한 교통로가 주로 사용되었는데, 특히 김해지역은 해로를 통한 교역을 위한 물류의 집하지로서의 기능이 추가 되었다. 따라서 하천을 통해 집하된 산물들은 김해 지역을 거쳐 해로를 통하여 한군현·예·왜·북방지역으로 교역되었다.<sup>11)</sup>

해로를 통한 對外交流의 주요 상대국은 한군현과 倭로서, 특히 김해지역은 대외교역의 주체로서 삼한시대 이후 자리잡았다고 보이는데, 《三國志》 위서 왜인조의 ‘郡에서 倭로 이르는 길은 해안을 둘러 바다로 가서 삼한의 나라들을 두루 거쳐 남쪽으로 가다가 동쪽으로 가서 倭의 北岸인 구야한국에 이르고 7천여리나 된다’ 라는 기록에서 이를 확인 할 수 있다.<sup>12)</sup>

주요 交易品은 기록이나 유적·유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鐵製品이었으며, 이외 海產物, 鹽, 布, 農產物, 人的資源이 있었다.<sup>13)</sup> 김해의 양동리 고분군과 대성동 고분군에는 대외 교류를 증명하

11) 漢郡縣 설치 이후 중국산 사치품의 등장과 辰·弁韓의 철이 촉매제가 되어 中國·漢郡縣·韓·倭사이에는 활발한 국제교역이 전개되었다. 3世紀代의 交易形態로는 朝貢貿易과 商人에 의한 교역 등 두 가지 형태를 상정할 수 있다. 이현혜 1994 <1~3世紀 韓半島의 對外交流體系> 《古代 東亞細亞의 再發見》 호암미술관.

12) 從郡至倭 循海岸水行 歷韓國 乍南乍東 到其北岸狗邪韓國 七千餘里 《三國志》魏書 東夷傳 倭條.

13) 고대국가단계 이전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 요소는 노동력이었으며, 《三國志》魏書 東夷傳 韓條, 《後漢書》東夷傳 韓條. 廉斯鎰(지황연간, A.D.20~23)·廉斯人 蘇馬誤(건원20년, A.D.44)에 대한 기록에는 鐵製鍊用 火木 伐木과 관련된 漢人 포로들의

는 각종 유물과 함께 많은 양의 철기가 副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주변 지역과 비교할 때 김해지역의 세력들은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우세한 정치적 위치를 가지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sup>14)</sup>

〈표-2〉 三韓時代 倭系遺物

출 토 지	출 토 유 물	출 토 지	출 토 유 물
김해 회현동	彌生土器	창원 도계동	鐵鏃
김해 지내동	彌生土器	창원 성산패총	彌生土器, 土師器
김해 유하리	彌生土器	함안 사내리	소형방제경
김해 예안리	鐵鏃	고성 동의동	광형동모, 銅鏡片
김해 부원동	彌生土器, 土師器	삼천포 늑도	彌生土器
김해 수가리	彌生土器	남해 세전리	彌生土器, 鐵鏃
부산 온천동	彌生土器	남해 도마리	彌生土器
부산 노포동	彌生土器	합천 저포리	鐵鏃
부산 조 도	彌生土器, 土師器	대구 비산동	중광동모, 동과
창원 내동패총	彌生土器	대구 만촌동	중광동모
경주 조양동	彌生土器, 鐵鏃		

〈표-3〉 中國系 出土遺物

출 토 지	출 토 유 물	출 토 지	출 토 유 물
김해 회현동패총	화천	마산 성산패총	오수전, 격자문대장경호
김해 양동리	방격규거사신경, 후한경, 방제경	창원 삼동동	유리제 장신구, 거울편
김해 부원동	격자문대장경호, 청자어형기	함안 사내리	전한경모방, 소형 방제경
김해 칠산동	유리제장신구	고성 동의동 패총	낙랑거울편
부산 조도	낙랑제 유리옥경식	합천 저포리	유리제 장신구
부산 노포동	유리제장신구	삼천포 늑도	낙랑토기
창원 다호리	성운경, 오수전, 소동탁, 금형대구	경주 조양동	유리제 장신구

존재가 보인다. 이외에도 영남지역에서 출토되는 土師器系 토기의 제작자를 철의 수입에 대한 반대급부로 보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14) 東義大學校博物館, 2000, 《金海 良洞里古墳文化》; 慶星大學校博物館, 2000, 《金海大成洞古墳群 I》.

## 〈丑-4〉 金海 大成洞出土 倭系遺物

1 號 墳	筒形銅器 8
2 號 墳	筒形銅器 2 · 巴形銅器 1
11 號 墳	筒形銅器 1
13 號 墳	巴形銅器 6 · 鏃形石製品 14 · 異形石製品 1
15 號 墳	筒形銅器 1
18 號 墳	筒形銅器 2 · 紡錘車形石製品 1
23 號 墳	巴形銅器片 1
39 號 墳	筒形銅器 2

이 수운망은 진한세력 역시 이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경주지역에서 서북지방으로의 진출 통로인 추풍령, 조령, 계림령을 개척한 것은 삼국 시대 이후의 일이다.<sup>15)</sup> 삼한시대에 가능한 통로는 경주 인근의 동해안 지역인 포항·울산이 유일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지역은 동해안 해로를 통한 濊·倭와의 관계에서는 다소 이점이 있으나 군현과의 해로를 통한 교역에는 상당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진한세력도 군현과의 교역을 위해서는 낙동강수계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1905년경 낙동강을 통한 선박 운송에 관한 자료에는 낙동강 본류의 운행한계는 平水時에는 河口로부터 약 290km 지점인 달지부근, 曾水時에는 약 340km 지점인 안동까지였고 실제 上行거리는 약 250km지점인 낙동까지였다고 한다.<sup>16)</sup> 삼한시대에는 현재보다 해수면이 상승해 있었던 것은 물론이고 하천의 퇴적상황도 현저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수로망에 연계된 지역은 이보다 더욱 확대될 수 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러한 지리적 입지 때문에 진한지역의 대외 교역망도 김해 지역을 중심으로 편제되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점은 김해지역의 정치적 위세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三國史記》,

15) 서영일, 1999, 《신라 육상 교통로 연구》 학연문화사.

16) 新納豊, 1989, 〈鐵道開通前後의 洛東江船運〉, 《韓國近代經濟史研究의 成果》.

《三國遺事》를 보면 신라 건국세력의 하나인 탈해집단이 동질적인 성격을 지녔던 수로집단과 교역권의 확보를 위해 경쟁하고 있다고 하던지, 17) 진한세력인 沸汁伐國과 悉直谷國이 지경을 다투었을때 이를 중재하고 漢祗部主를 처벌한 이가 金官國의 首露王이었다는 기사를 볼 수 있는데 18) 이는 모두 당시 변진한지역의 교역권의 확보에 따른 경쟁에 의해서 유발된 정치적 사건이라고 파악된다.

이러한 삼한·삼국시대의 대외문물교류관계를 볼 수 있는 출토유물 상황은 초기에는 中國系·倭系·北方系 등이 동시에 나타나지만 후기로 갈수록 倭에 집중된다. 이러한 현상은 漢郡縣의 멸망에 따른 것으로 이해되지만 왜와 변한지역의 밀접성은 이후 삼국시대 가야세력이 멸망할 때까지 지속되었다.



1. 노포동유적 2. 구서동유적 3. 북산동유적 4. 동래폐총 5. 조도폐총

〈그림-1〉 부산의 삼한시대 유적 분포도

17) 《三國遺事》卷 第2 駕洛國記, 《三國史記》卷 第1 新羅本紀 第1 脫解尼師今條.

18) 《三國史記》卷 第1 新羅本紀 第1 婆娑尼師今 23年條.

한편 부산지역의 소국인 瀆盧國 역시 對倭교역에 나섰던 것으로 추측된다. 즉 《삼국지》 위서에 ‘瀆盧國은 왜와 경계를 접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는데,<sup>19)</sup> 이는 왜와의 지리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관계를 암시하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다.

### Ⅲ. 삼한시대 부산지역의 대외교류

현재까지 부산지역에서 발견된 삼한시대 유적은 5개소이다. 구서동·복산동·노포동 등 분묘유적 3개소와 생활유적인 동래패총·조도패총 2개소이다.

그런데 이들 유적 중 체계적인 조사를 거친 곳은 노포동고분군, 복산동 고분군, 동래패총의 일부인데 이들 유적의 중심 연대는 3세기로 삼한시대 후기에 집중된다. 그러나 조도패총이나 구서동 유적 등 일부 유적에서 수습된 자료에서는 삼한 전기로 올라가는 유물의 모습도 보이고 있어 그 실체의 파악은 어렵지만 3세기 이전에 부산 지역에 세력이 형성되었음을 보여준다.

삼한시대의 개별 소국의 위치와 영역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연히 찾아낼 수는 없다. 다만 변한의 중심세력이 《三國志》魏書 등 중국 사서에서 보이는 弁韓 12國 중의 하나인 狗邪國이라는 것은 문헌사료나 고고자료에서 일치된다.

삼한시대 소국들의 결합관계는 비교적 느슨하였을 것이나, 고고자료에서 보이는 문화적 공통성은 특정한 지역의 정치체들이 정치적 연대 관계를 유지했을 것이라는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데, 현재의 연구성과로 보았을 때 부산 지역은 삼한시대에는 김해 지역 등 주변 지역과 문화적 양상이 일치되는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 특질의 유사

19) 其瀆盧國與倭接界. 《三國志》魏書 東夷傳 弁辰條.

성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는 4세기대 자료이긴 하지만 김해의 정치적 영향력의 범위를 보여주는 標識遺物인 外折口緣無蓋高杯가 있다. 이 토기는 김해를 중심으로 하여 釜山, 昌原, 鎭海 등 일정한 영역내에서 출토되고 있다.

이 범위내에 위치하는 유적 가운데 古墳의 규모나 副葬品에서 탁월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곳은 김해의 양동리 고분군, 대성동 고분군 그리고 부산의 복천동고분군인데,<sup>20)</sup> 이들의 관계는 삼한시대 이래 지속되어 온 문화적 공통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들의 정치적 이해는 경제관계의 유사성으로 인해 항상 일치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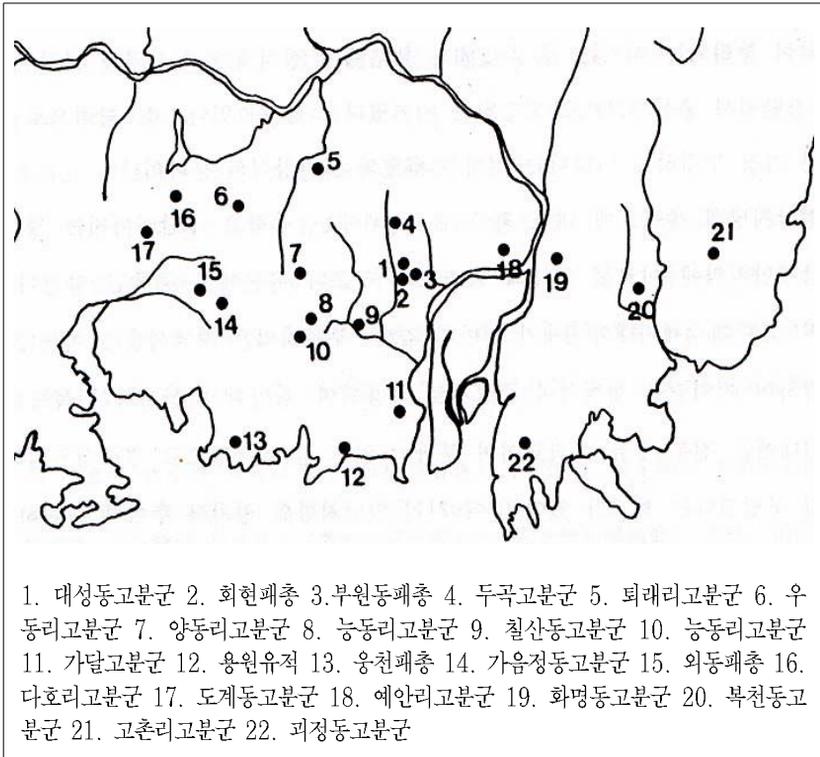
따라서 가야로 발전하게 되는 변한의 일원으로서의 瀆盧國이 김해지역의 狗邪國이나 경주의 斯盧國과의 관계가 어떻게 유지되며 발전해나갔는가를 먼저 살펴본 다음, 한군현·왜와의 대외관계의 향방을 살펴볼 것이다.

## 1. 居道 列傳을 통해본 삼한·삼국시대 부산의 對新라 교류관계

부산의 노포동고분군과 복천동고분군 등이 발굴되기 전에는 문헌자료의 부재로 인해 삼한·삼국시대 부산지역에 어떤 정치체가 존재했는가 또는 그 세력규모가 어떠한 수준이었는가에 대한 파악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지만 1980년대 이후에 진행된 이들 유적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 이후 부산지역의 정치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다양한 연구성과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최근에 이르러서는 복천동고분군을 조성한 집단이 전

20) 부산 동래지역에 위치했던 복천동고분군의 造營集團들은 《三國志》 魏書에 보이는 小國 중의 하나인 瀆盧國과 관련되어 있다고 파악되는데, 부산지역과 김해지역에는 왜와의 밀접성을 보여주는 고고자료들이 타지역에 비해 월등한 출토량을 보이고 있어 대외 교류적인 측면, 특히 왜와의 관계에 있어서 상당한 유사점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2〉 외절구연무개고배 출토지

기가야세력의 핵심세력인 김해의 대성동고분군세력과 더불어 주축을 이루었던 세력이었다는 설이 고고학계를 중심으로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신라가 이른 시기 부산지역을 병합해 그 영향권하에 두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sup>21)</sup>

부산지역의 소국으로 비정할 수 있는 것은 弁辰瀆盧國과 居漆山國이다. 弁辰瀆盧國은 《三國志》 魏書에 보이는 24개 弁辰小國 가운데 하

21) 주보돈, 〈4~5세기 釜山地域의 政治的 向方〉, 《가야사복원을 위한 복천동고분군의 재조명》, 1997, 제1회 부산광역시립북천박물관 학술발표대회.

나인데 ‘倭와 경계를 접하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점과<sup>22)</sup> 음상사적인 측면에서, 居漆山國은 《三國史記》 居道列傳과 地理志에 보이는데 ‘東萊郡이 원래 居漆山國(郡)이었다’라고 하고 있고,<sup>23)</sup> 《新增東國輿地勝覽》에 ‘菘山國(혹은 萊山國)이었는데 신라가 점령하여 居漆山郡을 두었다고 하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sup>24)</sup>

居漆山國이라는 국명이 부산지역을 가리킨다는 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지만 瀆盧國의 위치에 대해서는 釜山 東萊, 巨濟島 등 여러 지역에 비정되어 왔다.

이들 제설 중 丁若鏞이 《疆域考》 〈三韓總考〉에서 음상사적인 측면에서 거제도(居)를 瀆盧國으로 비정한 것은 이후 꾸준한 주목을 받았으나,<sup>25)</sup> 이 지역에서 나타나는 고고학적 위상이 당시 중심 소국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미약한 자료상태를 보여주고 있어 현재는 대부분 이를 부정하고 있다.

한편 동래지역은 삼한·삼국시대에 유력한 세력이 있었음을 말해주는 유적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음상사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도 가장 근접해 현재는 동래지역을 瀆盧國으로 비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sup>26)</sup>

《三國志》를 통해서도 소국의 위치 비정만이 가능했던 것과는 달리 《三國史記》 居道列傳에서는 부산지역이 삼한·삼국시대 처했던 정치 상황 특히 신라와의 관계를 단편적이거나 확인할 수 있다.

22) 《三國志》 魏書 東夷傳 弁辰條.

23) 《三國史記》 地理志 東萊郡條, 《三國史記》 卷 第44 列傳 居道傳.

24) 《新增東國輿地勝覽》 第23卷, 東萊郡 建置沿革條.

25) 鏞案瀆盧國者 今之巨濟府也 本裳郡 方言裳曰斗婁技與瀆盧聲近’ 《疆域考》

26) 丁仲煥, 〈瀆盧國考〉, 《加羅史研究》, 혜안, 2000 ; 신경철, 〈삼한시대의 동래〉, 《東萊區誌》, 1995. 선사시대 이래 남해안 지역 전역이 꾸준히 일본 열도와 교류를 가졌다는 점 등에서는 瀆盧國의 거제도설도 상당한 가능성은 있으나, 각 시대별로 출토되는 일본계유물의 집중도적인 측면으로 볼 때 왜와 가장 지근거리에 위치한 부산·김해지역에서 그 빈도가 월등함이 확인되고 있다.

A. 居道 失其族姓 不知何所人也 仕脫解尼師今爲干時 于尸山國居柒山國介居隣境 頗爲國患 居道爲邊官 潛懷并吞之志 每年一度集羣於張吐之野 使兵士騎之 馳走以爲戲樂 時人稱爲馬叔兩國人習見之 以爲新羅常事 不以爲怪 於是起兵馬 擊其不意 以滅二國.<sup>27)</sup>

이 기사는 삼한·삼국시대의 부산에 대한 거의 유일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약하면 脫解尼師今代(57~79년)에 蔚山과<sup>28)</sup> 東萊 양 지역이 신라에 무력 병합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기사를 그대로 신뢰하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이 기사는 탈해왕대의 사건으로 서술되어 있으므로 본고와 관련하여 탈해의 出自, 혹은 탈해집단의 성격, 그리고 성장 과정에 대한 것을 먼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탈해의 출자와 성장과정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이 《삼국사기》와 《三國遺事》에 각각 전하고 있다.

B. 脫解本多婆那國所生也 其國在倭國東北一千里…浮於海 任其所往 初至金官國海邊 金官人怪之不取 又至辰韓阿珍浦口 是始祖赫居世在位三十九年也…望楊山下瓠公宅 以爲吉地 設詭計 以取而居之 其地後爲月城 至南解王五年 聞其賢 以其女妻之…<sup>29)</sup>

C. 駕洛國海中有船來泊 其國首露王 與臣民鼓譟而迎 將欲留之 而舡乃飛走 至於雞林東下西知村阿珍浦…登吐舍山上作石塚 留七日 望城中可居之地 見一峰如三日月 勢可久之地 乃下尋之 卽瓠公宅也 乃設詭計 潛埋礪炭於其側 詰朝至門云 此是吾祖代家屋 瓠公云否 爭訟不決 乃告于官 官曰 以何驗是汝家 童曰 我本冶匠 乍出鄰鄉 而人取居之 請掘地檢看 從之 果得礪炭 乃取而居爲 時南解王知脫解是智人 以長公主妻之 是爲阿尼夫人…我骨置於東岳

27) 《三國史記》 卷 第44 列傳 居道傳.

28) 울산 웅촌면 하대고분에서 대규모 후기와질토기유적이 확인된 이후 于尸山國은 이 일대로 비정되고 있다. 釜山大學校博物館《蔚山下岱遺蹟-古墳 I》1997.

29) 《三國史記》 卷 第1 新羅本紀 第1 脫解尼師今條.

故令安之 (一云 崩後二十七世文虎王代 調露二年庚辰三月十五日 辛酉 夜見夢於太宗 有老人貌甚威猛 曰我是脫解也 拔我骨於疏川 丘 塑像安於土含山 王從其言 故至今國祀不絕 卽東岳神也云)<sup>30)</sup>

D. 忽有琬夏國含達王之夫人妊娠 彌月生卵 化爲人 名曰脫解 從海而來 身長三尺 頭圍一尺 悅焉詣闕 語於王云 我欲奪王之位故來耳 王答曰 天命我俾卽于位 將令安中國而綏下民 不敢違天之命 以與之位 又不敢以吾國吾民 付囑於汝 解云 若爾可爭其術 王曰可也 俄頃之間 解化爲鷹 王化爲鷲 又解化爲雀 王化爲鷓 于此際也 寸陰未移 解還本身 王亦復然 解乃伏膺曰 僕也適於角術之場 鷹之鷲 雀之於鷓 獲免焉 此蓋聖人惡殺之仁而然乎 僕之與王 爭位良難 便拜辭而出 到麟郊外渡頭 將中朝來泊之水道而行 王竊恐滯留 謀亂 急發舟師五百艘而追之 解奔入雞林地界 舟師盡還 事記所載 多異與新羅...<sup>31)</sup>

《삼국유사》의 기록이 《삼국사기》에 비해 실화적이고 상세하다는 점 이외에는 이들 사료들간의 내용상 큰 오차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들 기사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①탈해(집단)은 동해안 일대의 해상 세력이며 ②선진적인 철기문화를 소유하였고 ③경주지역으로 진출하기 이전 김해지역과의 경쟁을 모색하였으며 ④이에 실패한 후 우세한 철기문화를 앞세워 경주의 朴氏집단과 연맹을 하였다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신라의 초기 건국세력으로 묘사되어 있는 탈해는 철기문화를 소유한 외래집단으로 경주의 외곽인 울산지역을 포함한 동해안에서 경주 중심부로 진입해 나가면서 정치적으로 성장해 나갔었다는 것이 그와 관련된 사료들에서 확인되고 있다.

30) 《三國遺事》卷 第2 紀異 第1 脫解王條.

31) 《三國遺事》卷 第2 紀異 駕洛國記.

탈해의 근거지는 사료 B의 '왜의 동북 1천리에 있다' 라는 기록과 관련하여 본다면 경주의 동해안 지역임이 분명하다. 동해안에서 경주로의 접근로는 다양하지만 지금까지 발굴 조사된 유적으로 본다면 울산과 포항 지역이 주목된다.<sup>32)</sup> 이 두 지역은 모두 동해안 지역으로 실제 이 시기 문화적 양상에서는 경주 중심부와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은 세력들이다. 특히 울산지역의 경우 3세기대에 있어서는 경주지역보다도 선진적이었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sup>33)</sup>

그리고 아래와 같은 여러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탈해집단은 이들 두 지역 중 울산지역에 기반을 두었을 가능성이 많다.

탈해집단이 야장세력이므로 철광산지 인근에 위치하였을 것인데, 이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철광인 달천광산은 현재 울산의 북부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사료 C에 보이는 탈해가 도착한 雞林 동쪽의 下西知村 阿珍浦는 현재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 일대에 비정되는데 이 지역과 달천리와는 비교적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리고 탈해가 죽은 후 토함산의 신령으로 모셔졌다는 사료 C의 내용은 탈해가 이 지역 일대를 근거로 하고 있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다.<sup>3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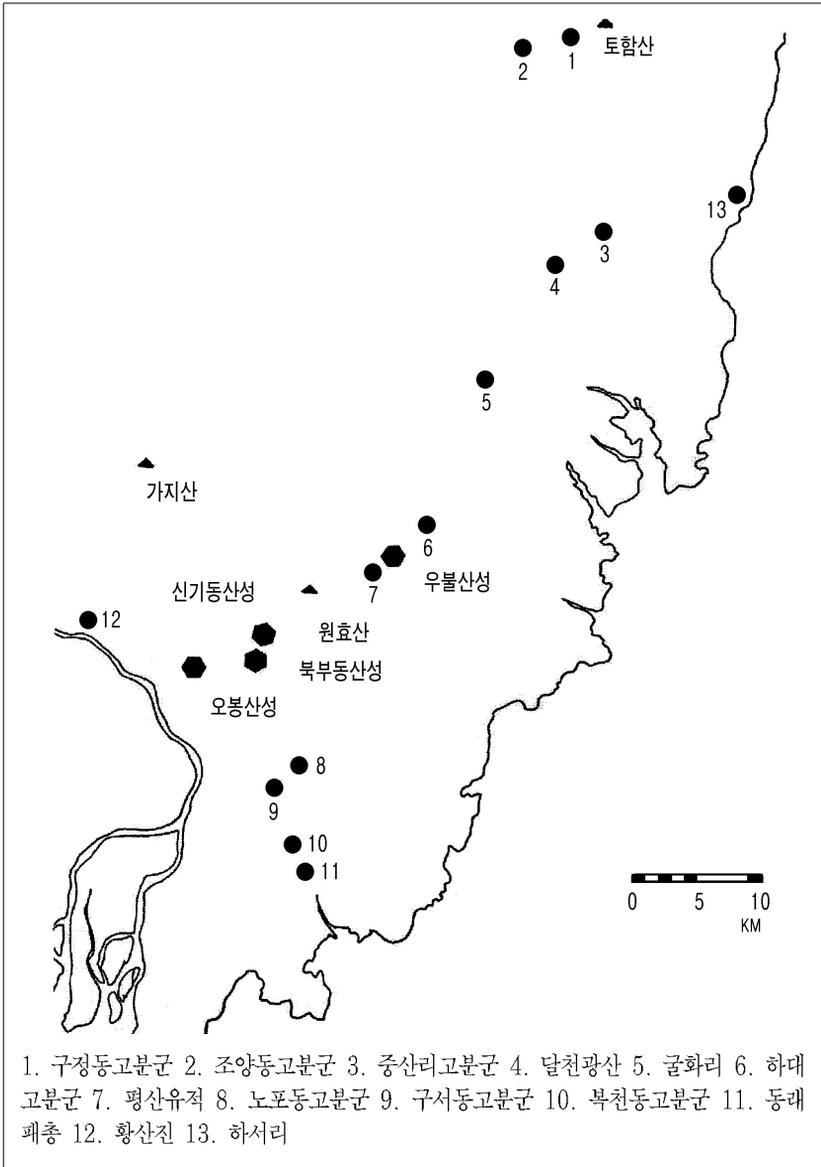
또한 사료 D의 수로왕과의 항쟁기사를 통해 본다면 탈해집단은 한군 현과의 독자적인 교역망을 확보, 또는 장악하려고 시도 하다가 김해의 금관국에 의해 제지당하고 있다. 이 사료는 탈해가 수로집단과 마찬가지로 해상교역세력이라는 것을 말해주는데, 탈해집단의 근거지와 관련시켜 본다면 이들이 사용한 항구는 아마도 삼국·통일신라시대에 이르기까지 신라가 대외교역항으로 사용하던 울산만이었을 것이다.<sup>35)</sup>

32) 포항의 옥성리고분군, 울산의 하대고분군, 중산리 고분군 등이 이에 속하는데 울산 지역의 경우 하대고분군 이외에도 삼한시대 중심유적이 드러날 가능성이 남아있다.

33) 김일규, 2002, <신라 성립 이전의 목곽묘연구-경주·울산지역을 중심으로->.

34) 경주의 대표적인 목곽묘유적인 구정동, 조양동 고분군도 모두 토함산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는 삼한시대 경주 인근의 세력형성과 관련되어 주목되는 부분이다.

35) 울산만을 통한 대외교류는 후대의 사료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찍부터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림-3> 신라의 육상교통로와 중요 유적 분포도

삼한시대 울산지역에는 다수의 소국들이 존재하였으리라 짐작되는데  
위서 동이전에 출전하는 진한 소국과 직접 관련시켜 비정할 만한 근거  
가 있는 곳은 없다. 다만 국내사료에는 于尸山國과 屈阿火村 등 두 개  
의 소국명이 보이고 있는데, 于尸山國이 탈해의 공략대상이었다는 점과  
농소의 달천광산을 확보하기 위한 유리한 지리적 조건을 감안한다면,  
소국의 규모를 확정지을 수 있는 유적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  
지만 破娑王代에 신라에 복속되는 현재의 울산시 범서면 굴화리 일대  
의 굴아화촌이 유력하다.<sup>36)</sup>

위와 같이 본다면 탈해집단은 현재 울산의 중북부 일대에 세력 기반  
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료 A에 보이는 것처럼 破娑王의 先代였던 脫解王代에 于尸山  
國이 신라에 의해 병합되었다고 보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른다. 또한 근  
본적으로 탈해이사금의 재위기인 1세기대의 斯盧國의 정치체 수준이  
소국간의 병합단계로 발전하기에는 이른 시기였다는 점, 그리고 斯盧國  
이 주변 諸小國을 병합하는 단계는 3세기 후반대로 추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부정되고 있다.

이것은 고고자료상으로는 더욱 분명히 나타나는데, 울산 하대고분군  
의 경우 3세기 후반 4세기초를 기점으로 해서 대형분의 축조가 사라지  
고 있어 지배층의 정치적 변동이 이 시기에 접어들어서 있었음이 확인  
되었고,<sup>37)</sup> 부산 북천동고분군의 경우에도 5세기대 이후에 신라화의 경

36) 《三國史記》卷 第34 雜志 第3 臨關郡條. 한편 이 지역은 내해왕대 가야의 포상팔국의 2차 침공지로도 비정된다. 《新增東國輿地勝覽》第22卷 蔚山郡 驛院條에는 堀火에는 驛院이 모두 설치되어 있었던 것은 물론이고 특히 이곳이 하곡현의 고지임을 기록하고 있어 이 곳이 삼국시대이래 교통의 중심지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현재까지 보고된 고고자료에 따르면 울산 지역에서는 하대고분군세력이 우월한 세력으로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삼한시대 소국의 규모가 비교적 제한되어 있음을 비추어 볼 때 웅촌 지역의 소국이 범서면 굴화리 일대까지 그 영향력을 확보했다고 파악하기는 곤란하므로 웅촌 일대의 세력과 굴화 일대의 세력은 서로 다른 개별소국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37) 釜山大學校博物館, 《蔚山下垆古墳群-古墳I》, 1997; 《東萊福泉洞古墳群I》, 1982; 《東萊福泉洞古墳群II》, 1990.

향이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기를 재조정해 본다면 결국 부산지역의 대신라관계를 보여 주는 이 기사는 삼국시대의 사건에 해당되므로 삼한시대 부산지역의 변한세력과 신라와의 대외관계 기록은 실질적으로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료의 내용을 재분석함으로써 이전 삼한시대 부산지역 정치체의 성격과 발전 계기에 대한 일면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신라에 복속되는 시점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는 두 소국에 대한 기록이 하나의 사건으로 기술되어 있는 것은 여러 사건들 묶어서 하나의 사건처럼 서술하고 있는 《삼국사기》 초기기록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술방식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사료를 분석하면 居漆山國·于尸山國 두 지역의 지리적 관계가 주목된다.

경주에서 부산·김해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자연적인 교통로는 해로를 제외시키다면,<sup>38)</sup> 경주 - 언양 - 양산읍(물금), 경주 - 울산 범서면(굴화리) - 울산 웅촌면(하대고분군) - 양산 웅상읍(평산리) - 동래(노포동고분군, 구서동 고분군, 동래패총, 복천동고분군) 방향으로 각각 연결되고 있다.

전자의 교통로상은 결국 낙동강을 경계로 김해지역(狗邪國-금관가야)과 경계를 접하게 되는데<sup>39)</sup> 이 교통로상으로의 진출은 결국 김해세력과 대결을 초래하게 된다.

아래의 기사는 탈해왕에서 지마왕대에 이르는 《삼국사기》에 출전하는 신라와 가야세력간의 분쟁기사로 여기에서는 남쪽 국경이 黃山津(현 양산시 물금읍 일대)으로 대표되는 낙동강연안임을 말해 주고 있다. 물론 이 기사들의 사건발생시점이 여러 정황으로 본다면 4세기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지만 가야

38) 海路를 통한 남방 진출의 가능성은 상존하므로 이에 대한 언급은 생략한다.

39) 이 지역은 주요 철광인 물금광산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세력과의 대립은 양산의 물금 일대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21년(77) 추 8월 阿淦 吉門이 黃山津口에서 가야명과 싸워 일천여 급을 얻었다.<sup>40)</sup>

8년(87) 추 7월… 남으로는 加耶와 접하였는데… ‘마땅히 城壘를 고쳐 적의 침입에 대비하라’… 이 달에 加召·馬頭 2城을 쌓았다.<sup>41)</sup>

17년(96) 9월 加耶人이 南鄙를 습격하여 왔으므로 加城主 長世를 보내 이를 막도록 했으나 적에게 살해당했다.<sup>42)</sup>

4년(115) 춘 2월 加耶가 南邊을 침입하였다. 추 7월 加耶를 親征하였다. 步騎를 이끌고 黃山河를 넘었는데… 북병이 일어나 여러 겹으로 에워싸니 왕이 군사를 지휘하여 奮擊해 포위를 뚫고 퇴각했다.<sup>43)</sup>

한편 자비왕 5년(462)년에도 倭가 插良州를 공격하고 있는 기사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5세기 중반대 이후에도 이곳이 여전히 신라에 있어서 군사적 거점지 역할을 수행하던 지역임을 나타내고 있다.<sup>44)</sup>

六年 2월에 왜인이 插良城을 침노하다가 이기지 못하고 물러가자, 왕이 伐智와 德智를 명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中路에 숨어 기다리다가 요격하여 크게 깨뜨리었다. 왕은 왜인이 자주 疆域을 침범하므로 緣邊에 두 성을 쌓고…<sup>45)</sup>

한편 후자의 교통로는 낙동강이 아닌 부산의 동래지역으로 통하게 된다. 이 교통로상에는 하대고분군을 비롯하여 삼한시대 대규모 취락유

40) 《三國史記》 卷 第1 新羅本紀 第1 脫解尼師今 21年條.

41) 《三國史記》 卷 第1 新羅本紀 第1 婆娑尼師今 8年條.

42) 《三國史記》 卷 第1 新羅本紀 第1 婆娑尼師今 17年條.

43) 《三國史記》 卷 第3 新羅本紀 第3 祇摩尼師今 4年條.

44) 삼국·통일신라시대에 걸쳐 사용된 山城이 이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45) 《三國史記》 卷 第3 新羅本紀 第3 慈悲麻立干 6月條.

적인 양산 웅상읍 평산리 유적, 부산 노포동고분군, 구서동고분군, 동래패총, 복천동고분군 등 삼한 후기의 이 지역 일대 주요 유적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유적 분포도를 통해 본다면 삼한시대 특히 삼한후기에는 울산 - 동래간의 루트로도 활발한 정치적·문화적교류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볼 때 사료 A에서 보듯이 고고자료상 병합된 시기가 1세기 이상 차이가 나는 于尸山國과 居漆山國 두 소국에 대한 병합과정을 일련하여 서술할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즉 이 기사는 신라의 낙동강 동남안으로 진출과정이 묘사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sup>46)</sup>

신라와 부산지역세력의 관계를 《삼국사기》 居道列傳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고고자료의 검토를 통해 기년을 조정해 본다면 신라의 동래지역에 대한 군사적 병합은 5세기대 이후에 가야·왜·백제 세력에 대한 방어선 확보를 목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사실상 삼국시대 이전의 斯盧國과 瀆盧國과의 대외관계를 보여주는 문헌자료는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리적 여건과 문화적 양상으로 보았을 때 울산과 동래 두 지역간에는 삼한 후기를 중심으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거도열전에서 우시산국과 거칠산국에 대한 병합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서술된 이유를 여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46) 5세기초반 이후 竪穴式石槨墓로서 加耶墓制의 전통을 고수하고 있던 복천동고분군의 지배층 분묘에서 신라식 토기와 金銅製冠 등의 賜與品이 출토되고 있는 것은 신라가 부산지역에 대해서는 김해지역과는 차별화하여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래지역에 대한 신라의 관심은 기본적으로 대외교류창고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긴 하지만, 《三國史記》에 보이는 것처럼 4세기대 중반에서 5세기 중반대에 왜가 그 어느 시기보다도 집중적이고 대규모로 신라에 대한 침공을 진행하였다고 볼 때, 복천동세력에 대한 신라의 정책은 오히려 회유적인 측면이 강했다고 볼 수 있다. 복천동세력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밀접한 대외교류관계를 여전히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점은 신라와 왜의 중개자 역할을 하는데 있어 유용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 2. 삼한시대 부산지역의 대외교류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부산지역 삼한 소국인 瀆盧國의 대외관계를 제시해주는 문헌자료는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韓으로 통칭되는 삼한세력의 단편적인 교류관계를 바탕으로 부산지역 일대에서 보이는 고고자료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瀆盧國의 대외관계를 추적할 수 밖에 없다.

諸韓의 대외교류는 주변의 여러 다른 나라보다도 우선적으로 한군현과 왜와의 관계에 집중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변진세력과 뒤를 이은 가야세력의 정치적 추이는 이들과의 관계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중국 정사에서 처음으로 중국과 삼한, 왜의 관계가 형성되는 과정이 보이는 기록은 《三國志》위서 동이전이다. 즉 '고조선의 준왕이 위만에게 저서 韓地로 도망가서 韓王을 칭했다'는 기사와<sup>47)</sup> '倭人은 帶方 동남쪽 大海中에 있는데 依山島爲國邑 100 여국으로 나누어져 있다. 漢代에 朝見해 온 나라가 있었고 지금 역관들이 통하는 곳은 30국이다. 郡에서 倭로 이르는 길은 해안을 둘러 바다로 가서 韓國들을 두루 거쳤다.' 라는 기록에서 보이듯이 문헌상 교류의 개시 시기는 늦어도 후한대부터라고 할 수 있다.<sup>48)</sup>

### 1) 郡縣과의 교류

변한을 비롯한 삼한세력은 일찍부터 郡縣과 교섭을 하고 있다. 아래의 기사에 따르면 2세기 후반경 後漢 말엽에 韓과 濊가 강성하여 낙랑군이 더 이상 제어할 수 없게 되었는데, 3세기초 건안 연간(A.D.196~220)에 이르러 요동의 공손씨가 낙랑군을 점령하고 이를 나누어서

47) 侯準既僭稱王 爲燕亡人衛滿所攻奪 將其左右宮人走入海 居韓地 自稱韓王. 《三國志》魏書 東夷傳 韓條.

48) 倭人在帶方東南大海中 依山島爲國邑 舊百餘國 漢時有朝見者 今使譯所通三十國 從郡至倭 循海岸水行 歷韓國 《三國志》魏書 東夷傳 倭條.

남쪽에 대방군을 설치하고 한·왜와 교류를 전개하기 시작하였다고 하고 있다. 또 이후 삼국 정립기 철 등 중요한 물자의 확보를 필요로 하게 된 魏는 2군을 확보하고 한과 적극적인 적극적인 교류관계를 진행시켜 나가게 된다.

桓靈之末 韓濊疆盛 郡縣不能制 民多流入韓國 建安中 公孫康分屯有縣以南荒地爲帶方郡 遣公孫模張敞等收集遺民 興兵伐韓濊 舊民稍出 是後倭韓遂屬帶方 景初中 明帝密遣帶方太守劉昕樂浪太守鮮于嗣越海定二郡 諸韓國臣智加賜邑君印綬 其次與邑長 其俗好衣幘 下戶詣郡朝謁 自服印綬衣幘千有餘人 部從事吳林以樂浪本統韓國 分割辰韓八國以與樂浪 吏譯轉有異同 臣智激韓忿 攻帶方郡崎離營 時太守弓遵樂浪太守劉茂興兵伐之 遵戰死<sup>49)</sup>

또한 《魏書》 東夷傳에는 王莽 때에 樂浪郡에 가서 교섭을 전개한 사실을 아래와 같이 전하고 있다.

至王莽地皇時 廉斯鏹爲辰韓右渠帥 聞樂浪土地美 人民饒樂 亡欲來降 出其邑落 見田中驅雀男子一人 其語非韓人 問之 男子曰 我等漢人 名戶來 我等輩千五百人伐材木 爲韓所擊得 皆斷髮爲奴 積三年矣 鏹曰 我當降漢樂浪 汝欲去不 好來曰可 鏹因將戶來出詣含資縣 縣言郡 郡即以鏹爲譯 從芑中乘大船入辰韓 逆取戶來 降伴輩尙得千人 其五百人已死 鏹時曉謂辰韓 汝還五百人 若不者 樂浪當遣萬兵乘船來擊汝 辰韓曰 五百人已死 我當出贖直耳 乃出辰韓萬五千人 弁韓布萬五千匹 鏹收取直還 郡表鏹功義 賜官幘田宅 子孫數世 至安帝延光四年時 故受復除<sup>50)</sup>

1세기 초반 韓이 벌목하러 왔던 중국인 천 5백명을 잡아 억류하였다가 5백명이 사망하여 辰韓人 15,000인과 弁韓布 15,000필로 보상하

49) 《三國志》 魏書 東夷傳 韓條.

50) 《三國志》 魏書 東夷傳 韓條.

었는데 이는 廉斯鎡를 매개로 해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 기사에서는 낙랑군과 韓과의 교통로에 대한 추정이 가능한 내용이 보이는데, 낙랑에서 韓으로 가려면 배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당시 교역에 있어서는 해로가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後漢書》 東夷傳 韓傳에 의하면 ‘後漢 光武帝 建武 20(44)년에 韓의 廉斯人 蘇馬謨 등이 樂浪郡에 가서 조공하니 光武帝가 蘇馬謨를 韓廉斯邑君에 봉하였다’라고 하였다.<sup>51)</sup> 이와 같이 3세기 초 帶方郡이 설치되기 이전에는 변한지역의 지배층이 군현에 가서 교섭을 전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교섭은 변한지역의 지배층이 적극성을 가지고 전개하였는데, 帶方郡에서는 중앙에 보고하면서 삼한의 소국 지배자들에게 ‘魏率善邑君·歸義侯·中郎將·都尉·伯長’이라는 官爵을 소국의 규모에 따라 차등있게 수여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당시 중국과 주변제국들과의 관계 대부분이 그러했듯이 한·군현과의 교역은 조공무역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辰王治日支國 臣智或加優呼臣雲遣支報·安邪馱支·濱臣離兒不例·  
拘邪秦支廉之號 其官有魏率善邑君·歸義侯·中郎將·都尉·伯長<sup>52)</sup>

한편 위의 기사에서 보이는 소국 중 변진지역으로 보이는 곳은 狗邪國과 安耶國이다. 변진지역에서 군현과 교역을 행할 시의 주된 세력은 김해지역에 위치한 狗邪國과 咸安의 安耶國이었다. 특히 狗邪國은 낙동강유역 소국들의 對郡縣 交涉을 중계한 것은 물론이고 한군현이나 왜에서 서로 교섭을 할 때에도 중계지로서 기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검토한 것처럼 중국계 위신제가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출토되는 것은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51) 建武 二十年 韓廉斯人蘇馬謨詣樂浪貢獻 光武封蘇馬謨爲韓廉斯邑君. 《後漢書》 東夷傳 韓條.

52) 《三國志》 魏書 東夷傳 韓條.

부산지역의 瀆盧國도 김해지역과 마찬가지로 탁월한 지리적 입지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군현과의 교류관계를 증명해주는 중국계의 유물들이 동래를 중심으로 하는 부산지역에서는 출토된 예가 드물어 군현과의 독자적인 교류가 가능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아파도 군현은 현실적으로 변진의 모든 물류가 모이는 낙동강하구를 교역장으로 선택하였을 것이므로, 그 以東에 위치한 瀆盧國은 군현과의 교역중심에서는 일정 정도 물러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sup>53)</sup> 따라서 瀆盧國은 왜와의 관계에 한층 비중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2) 對倭交涉

삼한시대 변한과 왜 이들 양세력의 관계에 대한 문헌기록은 지리적으로 인접하다는 정도에 불과하지만, 왜와 변한, 가야세력이 경제적 혹은 정치적으로 오랜 기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은 한반도 동남부와 일본 열도에서 발견되는 수많은 유물 유적에서 확인되고 있다.

변한과 倭의 교류는 군현과의 조공무역형식이 아니라 보다 실질적으로 식량이나 철의 교역과 노동력의 확보, 선진문물의 이입이라는 측면에서 진행되었다.

國出鐵韓濊倭皆徙取之 諸市買皆用鐵 如中國用錢 又以供給二郡<sup>54)</sup>

위의 기사에서 보이듯이 변한 지역의 철은 주변 거의 모든 세력에게 공급되었다. 이 당시에 이르면 한반도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이미 철이 자체적으로 생산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변한의 철이 주요 교역품으로 꼽혔던 이유는 생산량이나 품질이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뛰어

53) 복천동의 3세기 이전을 보여주는 유적들이 대부분 시가지로 개발되어 파괴되어버렸기 때문에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54) 《三國志》 卷30 魏書 東夷傳 韓條.

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열도의 경우, 철의 제련이 시작되는 시기는 6세기경이므로 그 이전에는 전적으로 철기와 철소재를 변한 지역에서 조달하였다. 일본에서의 철에 대한 욕구는 당시 그들이 처한 정치·경제적 위치를 통해 볼 때 매우 강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三國志》에서 보이듯이 倭는 韓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소국으로 나누어져 있는 상황이므로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특히 2세기 후반 倭國 간의 분쟁이 수 십년간 지속되면서 변한의 철에 대한 수요가 더욱 높아졌다. 이를 수습한 邪馬大國의 女王 卑彌呼는 鬼道라는 종교적 권능을 통하여 이들을 제어했는데, 혼란이 수습된 이후에 邪馬臺國은 교섭체제를 장악하여 九州의 伊都國에 ‘一大率’을 과견하여 유력한 소국들의 이전과 같은 개별적인 교섭을 감시 통제하게 되었다. 즉 ‘삼한의 소국들과 帶方郡의 사신이 倭國에 오면 모두 나루에서 검사하고 문서나 보내온 물품을 傳送한다.’<sup>55)</sup>고 하여 邪馬臺國의 통제권 내에 들어있는 소국들은 균현 및 변한과 개별적인 교섭을 전개할 수 없도록 하였다.

당시의 교섭 주 상대국은 狗邪國과 邪馬大國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통제가 완전히 이루어졌다고는 보기는 어렵다. 김해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많은 왜계유물이 집중되어 있지만, 당시의 인적 교류를 보여주는 土器類가 부산·고성·남해 등 경남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널리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sup>56)</sup> 토기는 교역품으로서의 기능을 하기도 하지만, 야요이계 토기나 하지끼계 토기의 경우는 직접 현지에서 외래계의 토기를 제작했던 증거라고 할 수 있다.

55) 諸韓國及郡使倭國 皆臨津搜露 傳送文書賜遺之物. 《三國志》魏書 倭條.

56) 왜의 소국들은 철제무기나 농기구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반대 급부라도 제공했을 것이다. 당시 倭의 사회발전단계상 소국간의 분쟁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들은 상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농업생산력의 확보와 강력한 군사력의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기 때문이다. 한편 邪馬大國이나 狗邪國이 변한 소국과 왜 소국들간의 교역을 전면적으로 통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을 것이다. 따라서 김해이외의 지역에서 왜계유물이 출토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특히 부산지역의 경우, 삼한시대 전기 유적의 조사례가 극히 부족하지만, 영도구 조도패총, 동래 복천동 내성 유적 등에서 일본 北部九州의 야요이 시대 중기초에서 전반대에 해당되는 야요이계 토기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삼국시대에 해당되기는 하지만 土師器系 토기가 발견되고 있어, 삼한시대에서 5세기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교류가 진행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들 왜계 토기가 삼한전기부터 부산지역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瀆盧國이 狗邪國을 통한 교역 뿐만 아니라 왜와의 직접적인 교류관계도 가졌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sup>57)</sup>

일본에서도 역시 韓系의 유물, 특히 와질토기가 출토되고 있는데, 對馬島, 福岡縣 등 北九州 일대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다. 당시 낙랑계 토기가 주로 교역품이었던 데에 비해 韓系 토기는 한반도 남부지방 출토의 왜계토기와 마찬가지로 인적교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표-5〉 土師器系土器 出土地

경 주	월성로 31호분
울 산	하대수습유구 I
부 산	복천동 71호분, 46호분 10호분, 42호분, 57호분, 45호분, 26호분, 39호분
	동래패총
김 해	예안리 31호분, 120호분, 122호분
	예안리 100호분
	부원동
	퇴래리 4호분
창원·마산	도계동 6호분
	현동 8호분, 43호분

57) 安在皓, 〈土師器溪軟質土器考〉《伽耶と古代東アジア》, 1993. 申敬澈, 「加耶出土 土師器系土器의 意義」《加耶의 對外交渉》, 제5회 가야사 학술회의 발표집, 1999.

앞에서 삼한시대 倭의 對韓 교역통로가 다변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은 이미 알아보았는데, 현재까지의 고고자료에 의한 결과이긴 하지만, 유독 하지끼계 토기가 부산지역에 집중된다는 것은 바로 독로국이 변진한 소국 중에서도 狗邪國과는 차별적으로 가장 활발한 대외교류창구의 역할을 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하겠다.<sup>58)</sup>

하지끼계 토기는 인적교류 즉 노동력의 확보라는 측면을 뚜렷이 보여주는 유물이다. 역사치관련 기사에서 확인되는 1,500 여명의 韓人들은 모두 벌목노예였다. 숫자상의 과장이 있었더라도 제철을 위해서는 많은 수의 노동력 확보가 필수적임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부산지역에서 발견되는 하지끼계의 토기는 독로국의 주 경제활동인 제철산업이 활발히 대규모로 이루어졌음을 증명해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 IV. 맺음말

이상에서 부산지역의 삼한세력과 진한, 군현, 왜 등 주변 제세력들과의 교류관계를 살펴보았다.

부산지역은 동남해안을 연결하는 탁월한 지리적 위치와 온난한 기후·환경조건을 바탕으로 구석기시대 이래 꾸준한 생활의 터전으로 자리잡았으며, 또한 이른 시기부터 대외교류를 진행시켜왔다.

58) 삼한시대~삼국시대초 부산지역에서는 김해 양동리고분군이나 대성동고분군 등에서 보이는 倭系 威信材의 출토량이 비교적 적어 대외교류관계에 있어서의 차별성을 보여 주고 있다. 왜계 위신재의 경우 漢·郡縣제의 위신재와는 그 위상에서 많은 차이가 난다. 삼한시대의 경우 대체로 정치체의 수준이나 문화적 역량이 변한이 왜에 비해서 우위에 위치했으므로 왜계 위신재가 가지는 역할에는 분명한 한계성이 있다. 狗邪國이 변한 지역에서 차지하는 정치적 위상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또 대외 교류의 중심창구로서의 기능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왜계 위신재가 필요했던 데에 비해, 기타 변한 제국에서는 그러한 위신재의 필요성은 적었다. 이들은 철의 교역을 통해서 위신재보다는 고대 시기 가장 필요한 생산 요소인 노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었다.

삼한시대에는 《삼국지》위서 동이전에 출전하는 변한 12개국 중의 하나로 중국 등에 일찍부터 그 존재가 알려졌을 만큼 성장하였는데, 철·곡식·소금·해산물 등의 풍부한 생산력이 기반이 되었다.

진한세력과는 삼한 후기를 중심으로 경주 동남부, 울산 중북부 일대를 근거지로 한 탈해집단과 울산 남부지역에 위치한 于尸山國과 관계를 형성하며 교류하고 있었다.

대외교류면에서는 군현과의 적극적 관계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김해의 狗邪國과 더불어 대외 교역을 이끌어 나가는 중요한 한 세력으로 자리잡고 있었다는 것은 부산지역에서 출토된 다양한 왜계 유물에서 알 수 있었다. 특히 하지끼계 토기를 통해서 부산지역에서도 풍부한 철 생산과 교역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삼한시대 유적 대부분이 심하게 파괴되어 버린 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지만, 4~5세기대 전개되는 부산 북천동 고분군의 우월한 문화적 양상을 감안한다면 동래 일대의 추후 고고학적 성과에 따라서 삼한시대 부산지역의 위상의 재고 여지는 충분하다고 하겠다.